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상승... 21만8천건
- Bloomberg: 지역연방은행들, 미 노동시장 내년에 둔화 예상
- Bloomberg: 많은 경제학자들이 불황을 잘못 판단한 이유
- Mckinsey & Company: 격동의 시기, 경제 상황 전망

#### [오일]

- Bloomberg: 오일 가격 다시 하락... 비축분 증가 때문

#### [무역]

- Bloomberg: 흥해 지역 선박, 절반 가까이 감소하다

#### [중국 경제]

- Bloomberg: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중국 부동산 침체 계속될 것”

#### [반도체]

- Bloomberg: 한국 반도체 생산량, 크게 회복하다... 글로벌 수요 덕분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BC: 자동차 감가상각, 팬데믹 이후 계속 줄어든다
- WSJ: 애플의 스마트카, 중국 스마트폰 먼저 기업들에 추월되다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Bloomberg: US Initial Jobless Claims Rise to 218,000, More Than Estimated**

#### **미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상승... 21만8천건**

-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크리스마스 전주에 증가했지만 여전히 탄력적인 노동 시장을 반영하고 있는 수준이다.
- 연방노동부 오늘 목요일에 따르면 신규 청구건수가 1만2천건 오른 21만8천건이었다.
- 4주 평균 청구 수치도 지난주에 21만2천건으로 별다른 병동이 없는 상태다.

Bloomberg 기사

### **Bloomberg: US Labor Market Seen Cooling in 2024, Regional Fed Surveys Show** **지역연방은행들, 미 노동시장 내년에 둔화 예상**

- 내년에 미 고용주들은 고용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임금 상승도 제한되고 인플레이 압력도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러 지역중앙은행의 설문 조사 결과다.
- 이번 조사 결과는 다음주의 연방 정부 월간 일자리 보고서를 앞두고 나온 발표다. 이코노미스트들은 내년 1분기에 월간 일자리 증가 숫자가 평균 8만개로 예상하는데 이는 올해 4분기의 반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 **Bloomberg: How Were So Many Economists So Wrong About the Recession?**

### **많은 경제학자들이 불황을 잘못 판단한 이유**

- 작년 이맘때 한 조사에서 85%의 경제학자들이 올해 경제 불황을 전망했다.
- 이들 중 많은 경제학자는 미 재무부 장관인 재닛 옐런의 경제적 관점에 수긍했는지 모른다. 그녀는 총수요에 상당한 감소가 있다면, 고용률이 감소하고 경제 불황이 올 것이라 예측했다.
- 그러나, 불황은 오지 않았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Paul Krugman 경제학자는 올해에 최근 디스인플레이션이 경제불황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 예측해 왔다. 옳은 판단에 대한 공로는 인정받아야겠지만, 그는 어쩐지 자신이 디스인플레이션이 불황을 일으킨다는 오래된 케인즈주의 거시경제학을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 옐런, Krugman, Christina Romer 그리고 다른 많은 경제학자의 전망이 틀린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답은, 그들이 수년 동안 경제침체를 가르쳐왔다는 것이다. (즉, 현실보다 학파 간의 논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이다) 솔직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 거시 경제학자들은 현재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거시경제학이 가진 문제점이다. 지금의 상황을 부분적이라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존재하지만, 주류 경제학파인 케인스 경제학자들의 호감을 사진 못했다.
- 거시경제학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분열되었는가 돌이켜볼 문제이다.

Bloomberg 기사

## Mckinsey & Company: Economic conditions outlook during turbulent times, December 2023

### 격동의 시기, 경제 상황 전망

- 맥킨지가 응답자를 대상으로 2024년 글로벌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인지 물음에, 67%의 응답자들은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분쟁을 언급했다.
- 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다소 줄어든 모양새다. 경제 성장 리스크로서 인플레이션은 크게 언급되지 않았다.
-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의 2024년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해 지금보다는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6개월 전에 비해 앞으로 경제전망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응답자는 지난 6월 44%에서 37%로 감소했다.
- 국내 경제 성장에 관해서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큰 위협으로 처음 언급됐는데, 이는 역시, 고금리에 대한 걱정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금리는 18가지의 리스크 중에서 13번째를 기록했다.
- 그러나, 이는 지역적 차이를 보였다. 국내 금리 인상을 긍정하는 비율에서는 중화권과 아시아 태평양 국가 응답자들의 비중은 높았지만, 유럽과 북미의 응답자들 비율은 소수에 불과했다.
- 향후 기업 전망에 대한 물음엔, 응답자들은 글로벌 경제에 대해 조심스럽고도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기업 매출 전망에 대해서는 60% 정도가 대체로 긍정적이며, 대다수의 응답자가 기업 인원 규모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 응답했다.

Mckinsey & Company 기사

### [오일]

## Bloomberg: Oil Falls Again on Signs of Further Build in Crude Stockpiles 오일 가격 다시 하락... 비축분 증가 때문

- 미국의 석유 비축이 계속되면서 오일 가격이 하락했다. 홀리데이에 거래량도 적어 시장의 변동성도 보였다.
- 이번주 수요일 서부 텍사스주 중질유가 1.9% 하락한 후에 배럴당 74불 밑으로 하락했다.
- 블룸버그가 확인한 보도에 따르면 미석유협회(API)는 미 전역의 재고가 1백80만 배럴 증가했다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 [무역]

## Bloomberg: Half of Red Sea Container-Ship Fleet Avoids Route After Attacks

### 홍해 지역 선박, 절반 가까이 감소하다

- 최신 업계 데이터에 따르면, 평소 홍해와 수에즈 운하를 운항하던 선박의 절반이 그 지역 항로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Flexport Inc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4백30만개의 컨테이너를 나를 수 있는 2백 99척의 선박이 항로를 변경했거나 변경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대비 두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전 세계 선박량의 18%와 맞먹는다.
- 또한 오늘 목요일에 발표된 Clarksons 데이터에 따르면, 10월 22일과 26일 사이 선박들의 아덴만 진입 건수가 10월 초 대비 40% 가까이 감소했다.
- 컨테이너 도착 건수는 87%, 유조선은 약 30%, 자동차 운반선은 25% 가까이 줄었다.

Bloomberg 기사

### [중국 경제]

## Bloomberg: Goldman, Morgan Stanley Expect China's Housing Slump to Persist

###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중국 부동산 침체 계속될 것”

-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그리고 UBS를 포함한 10곳의 금융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가 2024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 앞으로도 중국 경제 성장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중국 정부가 침체를 막기 위해 했던 노력이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이 예상이 맞는다면 중국은 3년 연속 부동산 건설 경기 위축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 중국의 주요 부동산 투자 지표는 2023년 11개월 동안 전년 대비 8% 하락했다. 작년에도 8.4% 하락을 겪었다.
-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중국의 부동산 관련 수요는 현재 중국 전체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8년 24%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Bloomberg 기사

**[반도체]****Bloomberg: South Korea Chip Output Jumps in Sign of Returning Global Demand****한국 반도체 생산량, 크게 회복하다... 글로벌 수요 덕분에**

- 한국의 반도체 업계가 올해 가장 큰 회복세를 기록했다. 생산량과 수출량이 증가하면서 내년도 한국 경제 전망에 중요한 반도체 시장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 목요일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반도체 생산량은 전년 대비 42%가 증가해 2017년 초 이후 가장 많았고, 출하량은 80% 급증해 2002년 말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재고는 36% 증가해 2월 이후 가장 적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 이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 1년 이상의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시사하며, 글로벌 기술 분야 시장의 수요가 회복 탄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CNBC: Cars are losing their value at a slower rate****자동차 감가상각, 팬데믹 이후 계속 줄어든다**

- 자동차의 감가상각은 모두에게 중요하다. 자동차 소유자와 구매자들은 자동차 중고 가격을 우려하며, 자동차 생산 기업들과 가맹점들 또한 임대료를 계산한다.
- 그러나, 팬데믹이 중고 자동차 시장을 뒤집어놨다. 자동차 생산이 감소하고, 공급망이 타격을 받으면서 중고차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 Black Book and Motor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책임자를 맡고 있는 Alex Yurchenko는 중고차 가격은 실질적으로 2년 동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업계 분석가들은 3년 후에 중고차의 가치는 팬데믹 때보다 10%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감가상각의 영향이 줄고 있는 것이다.

CNBC 기사

**WSJ: Apple Is Being Overtaken by Chinese Smartphone Rivals—in Cars****애플의 스마트카, 중국 스마트폰 먼저 기업들에 추월되다**

- 10년 후에도 애플은 애플 카를 출시하지 못할 수 있다. 반면, 중국에 가장 큰 스마트폰 기업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 화웨이와 샤오미가 이번 주 향상된 소프트웨어 특징을 가진 새로운 차를 출시했다. 이들 기업의 목표는 자사의 스마트폰 고객들을 첨단차량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관련 시장을 먼저 선점하는 것이다.
- Mizuho Bank에서 선임 연구원을 맡고 있는 Tang Jin는 중국의 스마트폰 기업들이 애플의 스마트 차량이 출시되기 전에, 스마트 차량을 만드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베이징에서 열린 행사에서 샤오미 회장인 Lei Jun은 샤오미의 스마트 자동차는 테슬라와 같은 방법으로 생산될 것이며, 엔비디아, 퀄컴 그리고 Bosch 같은 공급업체의 반도체와 부품을 사용할 것이라 말했다.

WSJ 기사

**[보고서]****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나홀로 잘나간' JP모건...2·3위 은행 합친 것보다 시장가치 ↑****올해 주가 26% 상승, 수익은 미국 전체 은행의 18% 차지**

올해 미국 금융업체들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려웠지만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에는 '나 홀로 잘나가는' 해였다.

'덩치의 힘'을 바탕으로 경쟁사를 인수하고 고객을 끌어들이는 등 성장을 거듭하면서 미국 내 2위와 3위 은행을 합친 것보다 훨씬 높은 시장가치를 기록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27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올해 JP모건의 시장가치는 4천852억 달러로, 2위 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2천659억 달러, 3위인 씨티그룹의 977억 달러를 합친 것보다 높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_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_office@kocham.org)[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